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14



Contents



※ 2026.1.22.(목) 기준(대상 기간 : 2026.01.16.~2026.01.21.)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탄소중립기본법, 시민대표단 500명이 공론화 거쳐 3월말까지 만든다 (2026.01.21)1
 -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탄소중립 역행·전력망 부담 우려" (2026.01.21)1
 -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6.01.20) 2
 - 주요국 탄소중립 '이행 단계' 진입...한국은 모빌리티 등 제조업 '편중' (2026.01.20) 2
 - 중소기업계 "환경 에너지 규제 완화...탄소중립 지원 필요" (2026.01.15) 2
 - 도시가스업계 만난 산업차관 "종사자 노고 감사...탄소중립 함께 이행" (2026.01.16) 3
 - 충남도, 7조 원 공공건축 추진... 목재 활용 탄소중립 실현 '속도' (2026.01.21) 3
 - 충북도, 탄소중립'실행력' 점검한다 ... 156개 과제 점검 본격화 (2026.01.21)4
 - 대구시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탄소중립·기후대응 (2026.01.21)4
 - 탄소중립 선도·지속가능한 클린예천 조성 박차 (2026.01.21)4
 - 행·의정·공기업대상-광주 남구] 탄소중립 제도화로 에너지 자립도시 '도약' (2026.01.20) · 5
 - 양평군, 환경교육으로 탄소중립 앞당긴다...'환경수도 양평' 시동 (2026.01.20) 5
 - 충남, 산업·농공 단지 '탄소중립' 실현 속도 낸다...태양광·ESS 설치 지원 (2026.01.20)6
 - 수열에너지 도입 상주, 탄소중립 실현 앞장 (2026.01.19) 6
 - 동대문구 '사회적가치 대상' 수상...탄소중립 '캠페인'에서 '일상'으로 바꾸다 (2026.01.19) 6
 - 진주시, 2026년 수소차 보급사업 시작...탄소중립 실현 (2026.01.19) 7

- 충남도, 민간 녹색건축물 확산으로 탄소중립 가속 (2026.01.19)	7
- 해남 자원순환복합센터, 탄소중립 '랜드마크' 우뚝 (2026.01.18)	7
- 올해 탄소중립포인트, 더 줄이면 더 받는다 (2026.01.18)	8
- 대전 서구, 탄소중립 실천 경진대회 참가 단지 모집 (2026.01.18)	8
- 세종시, 일상 속 탄소중립·녹색전환 추진 (2026.01.16)	9
- 충북도, 681억 원 투자로 탄소중립 축산·수산업 선도 (2026.01.16)	9
- 현대판 과거시험으로 배우는 탄소중립...파주 '울곡별시' 성황리 종료 (2026.01.16)	9
- 원주시, 겨울방학 탄소중립 체험프로그램 운영 (2026.01.16)	10
- 광명시,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구현한다 (2026.01.15)	10
- 충청남도·충남신보·농협은행·한국외식업중앙회, 4자 협업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20 억원 규모 금융지원 나선다 (2026.01.15)	10
- 조정식 성남시의원, 탄소중립과 제품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토론회 성료 (2026.01.15)	11

■ AI 분야 11

- 염태영 의원, AI 시대 '기본사회' 비전 정책토론회 개최 (2026.01.21)	11
- 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 결과 발표 (2026.01.18)	12
- 외교장관, UAE 행정청장 면담...AI·방산·원전 협력 논의 (2026.01.15)	12
- 안산시, 승격 40주년 맞아 '첨단로봇·AI 도시' 비전 제시 (2026.01.21)	13
- 수원시, 원천호수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2026.01.19)	13
- 대전 서구청장 출마 김종천 전 의장, 'AI 중심도시' 공약 발표 (2026.01.15)	13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마련...AI·에너지·문화 중심 발전 (2026.01.15)	14
- 해남군, 국가AI컴퓨팅센터·RE100 산단 조성으로 AI·에너지 수도 부상 (2026.01.15) ..	14

- 부산상의, 오피니언 리더 100인 조사...AI 산업 육성·해운 공공기관 이전이 핵심 (2026.01.15) 15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5

▪ 탄소중립 분야 15

- KATRI, 탄소중립 에너지 '지속 가능·바이오 연료' 시험분석 능력 확대에 집중 (2026.01.21)15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6

▪ 탄소중립 분야 16

- 한전KPS, 탄소중립 실천 연중 캠페인 실시...참여자에 경품 제공 (2026.01.21)16
- 한전KPS, AI·안전·지역협력·탄소중립 예산집중 (2026.01.18)17
- 남부발전,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두마리 토끼' 잡는다 (2026.01.18) 17
- 탄소중립 K-환경 가전 '에코버', 'CES 2026'에 출품 주목 (2026.01.19)18
- KB금융 "탄소중립·ESG 실천 행보 확대" (2026.01.16)18
- 동서발전, 2050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전환 세미나 (2026.01.15)18
- 탄소중립 시계는 도는데... 철강업계, K-스틸법 '실질 지원' 요구 (2026.01.15)19
- 안양대, 사학연금 ESG 경영 '우수상'..."탄소중립·윤리경영 앞장" (2026.01.20)19
- 경남정보대, 이차전지·탄소중립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 허브로 도약 (2026.01.15)20

▪ AI 분야 20

- CJ대한통운, 코엑스와 AI 기반 전시물류 서비스 '엑스박스' 론칭 (2026.01.21)20
- 카카오, '카카오톡 선물하기'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개편 (2026.01.20)21

-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대형 시중은행 AI 인감대조 시스템 수주 (2026.01.20)	21
- 현대차그룹, AI·로보틱스 전문가 밀란 코박 영입 (2026.01.16)	22
- 현대차, 피지컬AI 기대감에 주가 9% 상승...목표가 80만원 상향 (2026.01.21)	22
- 로보링크, 교육박람회서 피지컬 AI 교육 솔루션 '주미 AI' 선보여 (2026.01.19)	22
- 현대면세점, AI 기반 맞춤형 뷰티 체험존 'AI 뷰티 트립' 오픈 (2026.01.18)	23
- 세일즈포스, AI 에이전트 도입 기업 홀리데이 매출 성장률 59% 높아 (2026.01.15) ...	23
- TSMC, 4분기 순이익 23조5000억원...AI 칩 수요로 7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 (2026.01.16)	24
- 강원대, AI 부트캠프 어워즈 해커톤 개최...실전형 인재 양성 성과 점검 (2026.01.20)	24
-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KAIST에 59억원 추가 기부...누적 603억원 (2026.01.19)	25
- 국립경국대, 화분매개 연구 성과 발표...AI 융합 연구로 확장 (2026.01.17)	25
- 필리핀, AI챗봇 '그록' 접속 차단 6일 만에 해제 (2026.01.21)	25
- 네덜란드 법원, AI(챗GPT) 작성 혼인서약문 '혼인 무효' 판결 (2026.01.21)	26
- WEF 조사, 미국 AI 주식 하락 전망 52%...투자 열기는 지속 (2026.01.18)	26
- 경남 농업기술원, AI 기반 토마토 수확량 예측 모델 개발 (2026.01.20)	27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탄소중립기본법, 시민대표단 500명이 공론화 거쳐 3월말까지 만든다 (2026. 01.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31~2049년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음주부터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임. 시민대표단 500명이 숙의토론을 통해 감축 시나리오와 이행 전략을 논의할 계획임. -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31~2049년 감축목표를 민주적 과정으로 설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음.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장이 공론화위원장을 맡고 여야 간사 등 10명으로 구성됨. - 시민단체들은 3월 말까지의 촉박한 일정에 대해 '줄속 공론화' 우려를 제기하며 현재 결정 기준에 부합하는 의제 설정과 미래세대 참여 보장 등을 촉구함.
	<p>□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역행·전력망 부담 우려" (2026. 01.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국회와 업계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음. 학계에서는 국내 전원 구조와 기후 조건상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함. - 홍희기 경희대 교수는 겨울철 외기온도가 0℃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성능계수가 2.5 이하로 내려가 가스보일러보다 탄소 배출이 늘 수 있다고 지적함.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전기차 400만대 보급 시 추가 피크전력이 최대 20GW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절·지역별 외기 온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고 더 높은 계절성능지수를 요구하는 고시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양부처	<p>□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6.01.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부가 25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함. 기업별 최대 5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기존 정액·정률 방식과 달리 기업이 예상 감축량과 정부지원 희망금액을 제시해 톤당 탄소감축 대비 예산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선정함. 중소·중견기업에 전체 예산의 30%가 우선 배정됨. - 성과 협약 제도를 도입해 예상보다 초과 감축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미달 시에는 보조금 환수 등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임.
	<p>□ 주요국 탄소중립 '이행 단계' 진입...한국은 모빌리티 등 제조업 '편중' (2026.01.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에너지 전환 투자는 2조80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15년 대비 5.5배 증가함.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약속의 본격 이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도 같은 기간 55억달러에서 285억달러로 5.2배 증가했으나 2024년 투자의 45.6%가 전기차 등 모빌리티 제조에 집중되고 재생에너지 투자는 24.6%에 그침. 수소나 탄소포집·저장 등 차세대 기술 투자는 사실상 전무함. - 기후 테크 벤처투자의 65%가 2차전지·배터리 부품에 편중되고 양산 직전 단계부터는 투자가 1건도 없는 '투자 절벽' 현상이 발생하여 스케일업의 병목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p>□ 중소기업계 "환경 에너지 규제 완화...탄소중립 지원 필요" (2026.01.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ESG 규제와 전기 요금제 개선을 건의함. IoT 측정기기 부착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배출 자가측정제도 부담 완화 방안이 논의됨. - 중소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요금 제도의 체계적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함.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확대, 전량수출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 대상 확인 제도 합리화 등도 요청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힘.
	<p>□ 도시가스업계 만난 산업차관 "종사자 노고 감사...탄소중립 함께 이행" (2026.01.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한국도시가스협회 주최 2026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겨울철 안정적 공급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당부함. 30여개 도시가스사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함. - 송재호 협회장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힘. 에너지 복지 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문신학 차관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도시가스업계와 함께 이행하기 위해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겠다고 강조함.
지자체	<p>□ 충남도, 7조 원 공공건축 추진... 목재 활용 탄소중립 실현 '속도' (2026.01.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추진 중인 교육·복지·문화·체육 분야 공공건축 사업은 총 396건, 6조 9725억원 규모임. 도가 1조 8588억원으로 가장 많고 천안시 7038억원, 서산시 6830억원 순임. - 2024년 건축도시국 신설로 분산된 공공건축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기능을 건축도시국에서 직접 수행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41명의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사업 전문성을 높임. -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사업 3곳이 올해 설계용역 완료 후 착공하며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에도 목구조 부대복리시설을 적용하여 2045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방침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충북도, 탄소중립'실행력' 점검한다 . . . 156개 과제 점검 본격화 (2026.01.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도가 2024년 4월 수립한 제1차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이행관리 절차로 156개 과제에 대한 2025년도 추진상황 점검을 진행함. 온실가스 감축대책 118개,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 38개 과제가 포함됨. - 지난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충청북도 탄소중립 기술작업반'이 온실가스 감축인 지 예산제 검토와 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분석을 통해 44개 신규 감축 과제를 발굴함. - 결과보고서는 한국환경공단 및 충청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컨설팅을 반영해 보완하고 4월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임.
	<p>□ 대구시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탄소중립·기후대응 (2026.01.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가 '2040 대구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함. 2017년 수립된 2030 계획 이후 군위군 편입, 통합공항 건설,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함. - 기존 공원 일몰제 대응 중심에서 한 단계 나아가 확보된 공원을 지역적 특성과 탄소중립, 기후대응을 반영한 '특화공원'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함. -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임.
	<p>□ 탄소중립 선도·지속가능한 클린예천 조성 박차 (2026.01.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천군이 2026년 환경정책 분야에 총 225억원을 투입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 건설과 지속 가능한 '클린예천' 실현을 추진함. 친환경 차량 보급에 25억원을 투입해 224대를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도 병행함.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에 9억원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스마트 에어샤워기 설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에 11억원을 투입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수 수질 모니터링과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30억원을 투입하고 폐아이스팩·폐현수막 재활용, 텀블러 세척기 시범 설치 등 자원순환 문화 확산도 추진함.
	<p>□ 행·의정·공기업대상-광주 남구] 탄소중립 제도화로 에너지 자립도시 '도약' (2026.01.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남구가 '에너지 기본 조례',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등을 제정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적 틀을 마련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됨. - 전국 최초로 추진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을 통해 신흥전마을에 태양광, ESS, 전기차 충전소를 연계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함. 주민협동조합 설립으로 공동수익사업도 병행함. - 취약계층 5,580가구 대상 단열·조명 개선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20~40% 절감했으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50%, 온실가스 45% 감축을 목표로 설정함.
	<p>□ 양평군, 환경교육으로 탄소중립 앞당긴다...'환경수도 양평' 시동 (2026.01.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양평군이 '양평군 5개년 환경교육계획(2023~2027)'의 2025년도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음. 38개 세부과제 중 25개가 목표를 달성하고 13개는 진행 중임. - 2026년 환경교육 앱 개발,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탄소중립 정원교육·기후먹거리·친환경 탄소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임. 2025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됨. -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발간하여 2026년 약 2만1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충남, 산업·농공 단지 '탄소중립' 실현 속도 낸다...태양광·ESS 설치 지원 (2026.01.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가 RE100 이행을 위해 산업단지·농공단지·개별 입지 중소기업 대상 '산업(농공)단지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함. 총사업비 93억 2000만원을 투입함. -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최소 100kW 이상, ESS는 200kWh 이상 설치 시 신청 가능함. 올해 신규 도입한 공용전기 절감형은 지자체 소유 부지에 설치해 공용시설 전기요금 절감에 활용하며 단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함. - 선정 기업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과 충남 탄소중립산업센터의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연동을 위한 RTU 설치가 의무화됨.
	<p>□ 수열에너지 도입 상주, 탄소중립 실현 앞장 (2026.01.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자원공사 오봉근 재생에너지본부장이 상주시 낙동강 수열에너지단지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함.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팜혁신밸리(2ha)에 600RT의 수열에너지를 공급함. - 상주시는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과 기존 취수시설을 활용해 농업분야(스마트팜)에 최초로 수열에너지를 도입함. 2025년 한해 약 79만kwh의 에너지를 절감함. - 오봉근 본부장은 이 사업이 전국 최초로 지자체 관로를 이용해 대규모 스마트팜에 적용한 모범적인 활용 사례라고 평가함.
	<p>□ 동대문구 '사회적가치 대상' 수상...탄소중립 '캠페인'에서 '일상'으로 바꾸다 (2026.01.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동대문구가 한국사회공헌협회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함. 2023년 서울 자치구 최초로 '2050 탄소중립 미래도시' 비전을 선포함. - 민·관 거버넌스 '탄소 TALKS 동대문'을 구축하고 전통시장·공동주택·교육기관 등 11개 분야 분과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넓힘. 2023년 8월 서울 자치구 최초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하며 '위킹 시티 동대문'과 연계한 걷기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일'로 전환함.
	<p>□ 진주시, 2026년 수소차 보급사업 시작...탄소중립 실현 (2026.01.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시가 1월 26일부터 수소전기자동차(승용·고상버스) 보급사업을 시작함. 올해 수소 승용차 50대, 고상버스 3대 등 총 53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승용차의 10%인 5대는 취약계층·다자녀·생애최초 차량구매자에게 우선 배정함. - 지원금액은 승용차량 1대당 3310만원, 고상버스 1대당 3억5000만원 정액으로 지원함. 2021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261대를 보급함. - 호탄동과 판문동에서 수소충전소 2개소를 운영 중이며 문산휴게소 및 집현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도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가 충전소 건립을 추진 중임.
	<p>□ 충남도, 민간 녹색건축물 확산으로 탄소중립 가속 (2026.01.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도가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민간 분야 녹색건축물 확산을 본격 추진함.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그린리모델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민간 건축물은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민간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인증 신청과 획득 건수가 매우 낮음.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은 크지만 초기 공사비 부담과 정보 부족이 추진을 어렵게 함. - 도는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6-2030)'에 민간 건축주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모델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임.
	<p>□ 해남 자원순환복합센터, 탄소중립 '랜드마크' 우뚝 (2026.01.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가 개관 2년여 만에 2만여명이 이용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음. 2024년 5월 전남 최초로 문을 연 센터는 재활용품 교환센터에 1만5천명이 다녀가고 공유물품센터 대여 건수는 2만3천건을 돌파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운영 목표를 '오래 쓰고, 오래 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삶'으로 정하고 방학 기간 어린이·청소년 대상 '자원순환탐험대'와 '자원순환구조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임. - 매달 환경 전문가 초청 릴레이 강연을 신설하며 2월에는 남종영 작가와 함께 동물권과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임.
	<p>□ 올해 탄소중립포인트, 더 줄이면 더 받는다 (2026.01.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올해부터 '녹색생활 실천' 부문을 중심으로 개편됨. 전자영수증 발급(100원→10원), 일회용 컵 반납(200원→100원), 다회용기 사용(2000원→500원) 등 생활 속 실천 항목의 포인트가 전반적으로 축소됨. - 반면 투명 페트병, 알루미늄 캔 등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은 1kg당 300원으로 올랐고 공유자전거 이용은 1km당 100원으로 인상됨. 가정용 태양광 설치, 나무심기 행사 참여 등 5개 신규 항목도 추가됨. - 광주시는 제도의 출발지로 지난해 기준 참여 가구가 전체의 56%로 전국 1위를 기록함. 올해 예산은 181억원으로 확대됨.
	<p>□ 대전 서구, 탄소중립 실천 경진대회 참가 단지 모집 (2026.01.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서구가 2050 탄소중립 실천 아파트 경진대회에 참가할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모집함. 탄소중립포인트 신규 가입률, 전기 사용량 감축률, 탄소중립 우수사례 등 3개 분야를 평가함. - 올해부터는 기존 평가 항목이던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 제외됨. 참가 신청은 2월 20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우수 아파트 3곳을 선정해 상장과 18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임. - 참가 희망 공동주택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 기후환경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세종시, 일상 속 탄소중립·녹색전환 추진 (2026.01.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가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앞두고 일상 속 탄소중립·녹색전환 대책을 내놓음. 환경녹지국을 중심으로 전체 도시환경 관리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운영함. - 하계U대회 기간 경기장과 선수촌 주변에 개최 종목을 상징하는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회전 교차로에 'ㅇ(이응)정원'을 조성함. 시민·기업·단체로 구성된 '환경서포터즈'를 도입하고 매달 '환경정비의 날'도 운영함. - 올해 전기차 1227대, 수소차 56대 등 1283대의 무공해차를 보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대비 약 2.5배 확대된 규모임.
	<p>□ 충북도, 681억 원 투자로 탄소중립 확산·수산업 선도 (2026.01.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가 2026년까지 축산·수산 분야에 681억원을 투자하여 탄소중립과 스마트 기술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산업 육성에 나섬. 총 91개 과제를 선정함. - 축산정책 분야에 272억원, 친환경 축산 분야에 227억원을 지원함.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응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103억원,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 시설·장비 보급에 19억원을 투입함. - 해양수산분야에 59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에 30억원을 집중투자하고 수산식품가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8억원을 지원함.
	<p>□ 현대판 과거시험으로 배우는 탄소중립...파주 '울곡별시' 성황리 종료 (2026.01.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주시환경센터 '에코온'이 기후문화축제 '기후행동과 함께하는 울곡별시' 행사를 성황리에 마칩. 300명의 시민이 참여함. 조선시대 사사가 울곡 이이의 학문 정신과 질문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기후 문화행사임. - 행사는 조선시대 과거제 형식을 차용해 초시-복시-전시의 단계로 구성됨. 초시에서는 OX 문제 풀이, 복시에서는 객관식 시험, 전시에서는 '기후행동 선언문' 작성을 진행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신청자의 53.6%가 아동·청소년, 41.9%가 중장년으로 나타나 가족 참여형 기후 문화 교육 행사로서의 성격을 확인함.
	<p>□ 원주시, 겨울방학 탄소중립 체험프로그램 운영 (2026.01.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시가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2026년 겨울방학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씩 총 4회 기후변화홍보관에서 진행됨. - 일회용품 사용과 탄소중립 이해 교육, 천연 재료를 활용한 밀랍랩 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됨. 천연 밀랍과 면천을 활용한 '친환경 밀랍랩 만들기'를 통해 일회용 비닐랩 사용을 줄이는 대안을 실천함. - 모집 인원은 회당 선착순 20명씩이며 기후변화홍보관 전화 또는 현장 접수로 참가 신청 가능함.
	<p>□ 광명시,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구현한다 (2026.01.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광명시가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GIDC) B동에서 '지-스마트 허브(G-SMART HUB)' 개소식과 운영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함. 국토교통부의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구현의 핵심 거점 센터임. - 센터는 134.81㎡ 규모로 로비, 시민소통공간, 데이터존을 갖추고 스마트시티즌 교육, 리빙랩 프로그램, 오픈랩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총괄함. - 신재생에너지 자원 발전소 조성, 사물인터넷 친환경 녹색 가벽 구축, 침수·홍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임.
	<p>□ 충청남도·충남신보·농협은행·한국외식업중앙회, 4자 협업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20억원 규모 금융지원 나선다 (2026.01.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충남도, 농협은행, 한국외식업중앙회와 4자 공동 업무협약을 맺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고 12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통해 식품접객업 일회용품 근절 문화 확산에 나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와 농협은행이 각 5억원을 출연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가 지원 대상을 발굴하며 충남신보가 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을 공급함. 전액보증, 보증료 우대 적용 및 저금리 자금 등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함. - 해당 상품은 1월 20일부터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함.
	<p>□ 조정식 성남시의원, 탄소중립과 제품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토론회 성료 (2026.01.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정식 의원이 「탄소중립과 제품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개최하여 성남지역 수출기업의 탄소경쟁력 확보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함. - 김익 한국전과정평가학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제품탄소규제가 공급망까지 확대되는 국제적 흐름을 설명함. EU의 지속가능배터리 규제(SBR), 에코디자인 규제(ESPR), 포장재 규제(PPWR) 등 주요 제도를 소개함. - 향후 기업들의 대응 역량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염태영 의원, AI 시대 '기본사회' 비전 정책토론회 개최 (2026.01.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시대, 기본사회 실현과 경기도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선별적 복지를 넘어선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의 기본사회 비전 선포. 과거 경제성장 공식이었던 '낙수효과'의 종말을 선언하고, 인구 1400만의 경기도를 기본사회 실현의 최적 시험대로 정의. - 염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형 4대 기본사회 전략'은 에너지 배당(재생에너지 수익도민 공유), 디지털 주권(데이터 주권 확립), 기본 금융(독자적 금융 생태계 조성),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기본 주거(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주거 안정) 등 구체적 내용 포함. 개발 이익을 기본주택과 생활 인프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미애 법사위원장, 박지원·김태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3명이 공동 주최하고, 성균관대·군산대 교수진이 발제. AI·에너지 대전환 시대 기본사회 정책의 제도화와 실행 전략 논의. 향후 기본사회 관련 특별법 제정 및 경기도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예정.
	<p>□ 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 결과 발표 (2026.01.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대표 AI 선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1차 평가에서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를 탈락시키고, 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 3개사를 2차 단계 진출팀으로 선정. 당초 1개사만 탈락 예정이었으나 2개사로 확대되며 '패자부활전' 추가 선발 발표. - 네이버클라우드는 중국 알리바바 모델의 비전 인코더를 가중치 변경 없이 차용해 '프롬 스크래치(독자 개발)' 조건 미충족 판정. NC AI도 최저점으로 탈락. 패자부활전에 대해 네이버클라우드·NC AI·카카오 모두 불참 의사 표명으로 유력 후보는 KT만 남은 상황. - LG AI연구원이 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 3개 분야 모두 최고점 획득. 정부는 추가 참여 기업이 없을 경우 확보된 GPU·데이터 자원을 기존 3개 컨소시엄에 재분배할 방침. 최종 선정 기업 2곳에 'K-AI' 명칭 부여 및 GPU 등 지원 예정.
	<p>□ 외교장관, UAE 행정청장 면담...AI·방산·원전 협력 논의 (2026.01.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현 외교부 장관이 칼둔 칼리파 알-무바라크 UAE 행정청장과 면담하고 양국 국민 방문 후속 조치 논의.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민 방문 이후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 - 양측은 인공지능(AI), 방산, 원전, 첨단기술,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상호호혜적 협력 강화에 합의. 조 장관은 지역 및 국제정세에서도 협력 여지가 크다며 미래지향적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 기여 기대 표명.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둔 행정청장은 한국과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전달.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전망.
지자체	<p>□ 안산시, 승격 40주년 맞아 '첨단로봇·AI 도시' 비전 제시 (2026.01.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시가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첨단로봇·AI 도시'로의 도약 비전 발표. 기존 제조업 기반의 산업도시에서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전환 추진. -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 및 도시 경쟁력 강화 계획.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승격 40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형 도시로의 변모 추진. 첨단로봇·AI 분야 기업 유치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전망.
	<p>□ 수원시, 원천호수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2026.01.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특례시가 원천호수에서 수거한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확인. 지난 13일 폐사체 수거 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검사 의뢰, 17일 최종 판정. - 시는 원천호수 산책로 하부 일부 구간(나무데크길) 출입을 2월 3일까지 통제하고, 검출 지역 주변 방역 실시. 산책로 부근에 소독발판 설치 완료. - 검출지 반경 10km 내 광교·일월·원천·신대 저수지, 만석거, 황구지천 등 철새 도래지를 예찰 구역으로 설정해 예찰 강화. 가금 사육 가구 방역소독 지속 및 이상 야생조류 예찰 강화 방침.
	<p>□ 대전 서구청장 출마 김종천 전 의장, 'AI 중심도시' 공약 발표 (2026.01.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이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지지자 200여명과 함께 대전 서구청장 출마 공식 선언. 12년간 의정활동 경험과 시정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7대 비전 공약 제시. -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대전환으로 규정하고, 서구를 통합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광역시권 선도 도시이자 AI 혁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비전 발표. 기존의 '기계적 관리 행정'을 넘어선 도시 미래 설계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전 의장은 “구청장은 행정 관리를 넘어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라며 서구의 품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책임정치 실현 의지 표명. 6·7·8대 대전시의원 및 8대 전반기 의장 역임 경력 보유.
	<p>□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마련…AI·에너지·문화 중심 발전 (2026.01.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 40년 만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 마련.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300개 특례를 포함한 자치·행정 분권 강화 토대 구축. - 특별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설치 목적 명시. 특별시장의 권한을 중앙기관장과 동등하게 규정하고, 통합에 따른 공무원 공정 처우 보장 및 원거리 이동 시 지원책 마련.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부분을 20년간 추가 지원. - AI, 에너지, 문화를 3대 발전 축으로 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광주전남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 5년마다 특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및 글로벌 미래 첨단 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p>□ 해남군, 국가AI컴퓨팅센터·RE100 산단 조성으로 AI·에너지 수도 부상 (2026.01.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국가AI컴퓨팅센터 조성사업 대상지로 확정. 삼성SDS·네이버·카카오·KT 컨소시엄이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GPU 1만 5000장, 2030년까지 5만장 확보 목표. 올 상반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착공 추진. - LS전선이 5300억원을 투자해 화원산단에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배후항만 조성 예정. 정부의 서남권 RE100 국가산단 조성 계획에서 해남이 1호 시범지구로 유력. 한전KDN과 에너지 특화 AI데이터센터 구축 업무협약 체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라시도에 98MW 태양광 발전단지 가동 중이며 2030년까지 5.4GW로 확대 계획. 신안 12.3GW 해상풍력과 연계 시 전국 최대 재생에너지 중심지 도약 전망. 광주 해남 고속도로, 해남신안 해저터널 추진으로 인구 10만명 신도시 형성 기대.
	<p>□ 부산상의, 오피니언 리더 100인 조사...AI 산업 육성·해운 공공기관 이전이 핵심 (2026.01.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오피니언 리더 100인 대상 '2026 이슈 트렌드 조사' 결과 발표. 부산 경제 재도약 핵심 열쇠로 '해양수산부 및 공공기관 이전'(52%)과 'AI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 응답자 94%가 2026년 최유망 산업으로 AI를 선택하고, 기업 생존 키워드로 56%가 '스마트화' 응답. 2026년 경제 전망에서 53%가 'U자형 회복'의 완만한 상승 예상, 23%는 L자형 장기 침체 우려. - 해수부 관련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등 해운 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이 글로벌 해양 도시 도약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 문제(87%)와 지역 소멸(62%)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KATRI, 탄소중립 에너지 '지속 가능·바이오 연료' 시험분석 능력 확대에 집중 (2026.01.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TRI시험연구원이 지속 가능항공유(SAF), 폐식용유, 바이오 고형연료 등의 품질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험분석 체계를 구축함.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유일하게 '바이오 탄소 함량' KOLAS 인정을 획득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시험기관 최초로 도입한 가속질량분석기(AMS)와 이차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2D GC-TOFMS) 등 최첨단 장비를 운용하며 데이터 정밀도 향상에 노력 중임. - 지난 3월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이오 연료 및 지속 가능 원료 분야의 시험·검사·인증 서비스 전반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한전KPS, 탄소중립 실천 연중 캠페인 실시...참여자에 경품 제공 (2026.01.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KPS가 1월 22일부터 27일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연중 캠페인 1탄 '겨울철 에너지 절약법 공유' SNS 이벤트를 실시함.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팔로우와 좋아요 후 에너지 절약방법을 공유하면 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난방온도 지키기, 창문 단열시트 부착, 친환경 보일러 사용, 실내복 착용 등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상품권 및 음료교환권 등 경품을 지급함. - 한전KPS는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실천활동 지원, 농어촌 탄소중립마을 조성 지원, 국사이클링 캠페인 등 환경경영 활동을 이어가며 4년 연속 ESG경영 A 등급을 획득함.
	<p>□ 한전KPS, AI·안전·지역협력·탄소중립 예산집중 (2026.01.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KPS가 2026년 예산규모 2조252억원을 책정하고 AI 활용 확대, 안전한 공공일터 구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등에 예산을 집중 집행할 예정임. - 단순 홍보비나 소모품 구매, 출장 및 행사 등 불필요한 소비성 비용 지출을 최소화키로 함. 연초 예산절감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고 상반기 내 핵심 재무성과 목표설정 및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함. - 김홍연 사장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기본 책무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지속성장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p>□ 남부발전,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두마리 토끼' 잡는다 (2026.01.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남부발전이 하동빛드림본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참석 하에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 및 전소 발전소 추진 로드맵'을 발표함. - 하동 7·8호기를 '축분 연료 혼소발전 설비'로 선정하고 2026년 10월 착공 예정임. 저장조, 분쇄기, 이송 설비 등 전 공정을 밀폐형 시스템으로 구축해 비산먼지와 악취를 원천 차단할 계획임. - 단기적으로는 기존 석탄발전소에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섞어 태우는 혼소발전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하동, 삼척 등 주요 권역별로 축분 전소 발전소 운영을 검토 중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탄소중립 K-환경 가전 '에코버', 'CES 2026'에 출품 주목 (2026.01.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지네트웍스가 공기청정 통합 솔루션 '에코버(ecover)'를 CES 2026에 출품하여 글로벌 바이어의 관심을 끌음. 대용량 공기청정살균기, 스마트 공기청정살균기, 차량용 공기정화기 및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을 포함함. - 체육관, 전시장, 로비 등 다중이용시설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스마트 센서를 통해 실내 공기 질을 실시간 분석하고 최적의 청정 상태를 유지하는 '지능형 통합 관리 플랫폼'이 적용됨. - 버스형 공기 청정 살균기는 대중교통 위생에 민감한 북미와 유럽 시장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이동식 청정 구역'을 구현함.
	<p>□ KB금융 "탄소중립 · ESG 실천 행보 확대" (2026.01.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금융그룹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의 '2025 기후변화 대응부문' 평가에서 2년 연속 리더십 A를 획득함.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2%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통해 33.2조원 규모의 ESG 금융을 공급함. - '2025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에서 종합 ESG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 미래세대 지원과 포용적 금융 확대, 녹색전환 촉진, 책임 있는 지배구조 확립 등 ESG 전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음. -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을 도입하여 우수 산업안전 기술·제품 보유 기업 발굴·육성에 나섬.
	<p>□ 동서발전, 2050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전환 세미나 (2026.01.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동서발전이 울산 본사에서 홍익대학교 전영환 교수를 초청해 '2050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동서발전의 전원개발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 전영환 교수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해 무탄소 연료 전환, 양수발전 등 관성전원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함. 지역차등 요금제(LMP) 도입 필요성도 제시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명호 사장은 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전원을 적극 확대해 2035 NDC 달성을 선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힘. <p>□ 탄소중립 시계는 도는데... 철강업계, K-스틸법 '실질 지원' 요구 (2026.01.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스틸법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철강업계에서 수소·전력 비용과 설비 투자 부담이 과도하다며 실질적 지원 체계를 요구함. 수소환원제철이 기존 고로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수소 가격이 1kg당 1달러 수준까지 낮아져야 함. - 포스코 하이텍스 데모플랜트의 국비 지원은 38%에 그치고 대부분 R&D 예산으로 편성됨. 수소환원제철은 전기로 기반 전환 시 전력 소모가 기존 고로 대비 60% 이상 증가함. -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시행령에 고급 스크랩 확보를 위한 가공전문기업 지정제, 선별·정제 설비 투자 지원, AI 선별 기술 설치·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대학교	<p>□ 안양대, 사학연금 ESG 경영 '우수상'..."탄소중립·윤리경영 앞장" (2026.01.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대학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최 '제3회 사학연금 ESG 경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탄소중립 실천과 사회적 책임 이행, 투명한 윤리 경영의 공로로 우수상을 수상함. - 환경 분야에서 '탄소에너지중립위원회'를 설립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선언했으며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 설비 교체로 전력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임. 사회 분야에서는 아리봉사단, 삼별초봉사단 활동과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등을 진행함. -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경영진과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브라운백 미팅'을 도입하여 수평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 경남정보대, 이차전지·탄소중립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 허브로 도약 (2026.01.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정보대학교 심재형 교수가 '2025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COSS) 성과포럼'에서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함. 이차전지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으로서 현재까지 총 229명의 이차전지 전문 인력을 양성함. - 경남정보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하는 '2025년 이차전지 컨소시엄 서포터즈 경진대회'를 'AI를 활용한 이차전지 홍보 전략'을 주제로 개최함. - 부울경 지역 중·고등학생 대상 'KIT 넷제로(Net-Zero) 지구:ON 탄소:OFF 아이디어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생활 속 탄소중립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장을 마련함.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CJ대한통운, 코엑스와 AI 기반 전시물류 서비스 '엑스박스' 론칭 (2026.01.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J대한통운이 코엑스와 함께 국내 최초 AI 기반 전시화물 전용 물류서비스 '엑스박스' 공식 론칭. 전시 일정·규모·취급품목·부스 위치정보 등을 반영한 AI 기반 자동배차 및 경로 최적화, 밀크런 방식 집배송 운영 시스템 구현. - CJ대한통운은 전국 약 880여개 물류센터와 290여개 배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물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참가업체의 물류비 절감, 전시장 내외 혼잡 완화, 차량 운행 최소화를 통한 친환경 전시물류 생태계 조성 목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준비부터 종료 후 회수까지 참가 업체의 물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코엑스는 전시 주최측 및 참가기업 대상으로 엑스박스 이용 독려. 단계적 서비스 기능 확대 예정.
	<p>□ 카카오, '카카오톡 선물하기'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개편 (2026.01.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랭킹탭과 상품 상세 화면 전면 개편. 기존 2개 랭킹탭을 '급상승', '카테고리', '선물테마' 등 3개 탭으로 확대하고, 성별·연령대·가격대별 필터 기능 제공. 랭킹별 노출 상품 수 최대 500위까지 확대. - AI가 상품 정보를 분석해 상품 속성, 선물 대상, 선물 목적을 태그 형태로 상세페이지에 표시하고, 한 줄 요약 정보 제공으로 구매 결정 지원. 뷰티·식품·건강 카테고리 중심 시범 운영 후 전체 카테고리로 확대 예정. - 상품 상세 화면 하단에 유사 상품, 카테고리 인기 상품, 비슷한 가격대 인기 상품 추천 영역 확대. 결제 혜택, 멤버십 포인트 적립, 선물포장 등 혜택 정보를 모아 볼 수 있는 '베네피트 영역' 신설. - 원문 제목: “AI가 선물 추천해준다“…카카오,
	<p>□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대형 시중은행 AI 인감대조 시스템 수주 (2026.01.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보안 인증 전문기업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가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인감도장 대조 업무 디지털 전환(DX) 프로젝트 수주. 수십 년간 종이 서류와 육안 확인에 의존해 온 인감 확인 절차를 AI 기반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 - 회사의 인감대사 솔루션은 AI와 고도화된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인감 이미지 자동 대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공인시험을 통과하며 99.9%의 인감 대조 정확도 공식 검증. 일본은 대부분 금융기관이 이미 채택 운영 중. - 디지털 인감 대조 시스템 도입 시 서류 확인 시간 대폭 단축, 고객 대기 시간 감소, 업무 이력 관리 및 내부 통제 강화 기대. 이번 대형 은행 수주를 계기로 국내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전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현대차그룹, AI·로보틱스 전문가 밀란 코박 영입 (2026.01.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그룹이 AI·로보틱스·자율주행 분야 세계적 전문가 밀란 코박(Milan Kovac)을 그룹 자문역으로 선임하고, 보스턴다이나믹스 사외이사로 임명 예정 발표. 밀란 코박은 약 20년간 소프트웨어·하드웨어·AI 기반 로보틱스 시스템 분야에서 활동한 글로벌 기술 리더. - 밀란 코박은 최근까지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등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카메라 기반 비전 중심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주도. 관련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 - 현대차그룹은 이번 영입으로 보스턴다이나믹스의 AI 기반 로보틱스 혁신 가속화 및 스팟·스트레치·아틀라스 등 로봇 제품군의 중장기 전략과 상용화에 속도를 낼 계획. 제조·물류·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생태계에서 첨단 AI·로보틱스 기술 적용 모색.
	<p>□ 현대차, 피지컬AI 기대감에 주가 9% 상승...목표가 80만원 상향 (2026.01.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차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9.19% 상승한 52만 3000원에 거래, 장중 53만 5000원까지 올라 52주 최고가 경신. KB증권이 로봇 기반 생산성 혁신을 높이 평가하며 목표 주가 80만원으로 상향. - KB증권 강성진 연구원은 “구글 제미니와 로보틱스와의 협업을 통한 AI 두뇌, 방대한 공장 데이터, 빠른 의사결정 구조, 대규모 양산 역량을 동시에 갖춘 기업은 현대차그룹과 테슬라뿐”이라고 평가. 보스턴다이나믹스 간접 지분가치 35조원 포함 적정 시가총액 164조원 산정. - NH투자증권도 목표가를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CES 2026 이후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가치 재평가 진행 중. 2027년 기준 보스턴다이나믹스 영업가치 53조 3000억원, 현대차 간접 보유 지분 27.1%의 가치 14조4000억원으로 추정.
	<p>□ 로보링크, 교육박람회서 피지컬 AI 교육 솔루션 '주미 AI' 선보여 (2026.01.19)</p>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에듀테인먼트 기업 로보링크가 21일 개막하는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피지컬 AI 기반 교육 솔루션 발표. 피지컬 AI는 센서·카메라·모터·환경 인식 등으로 실제 물리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 기술. - 주요 제품 '주미 AI'는 컴퓨터 없이 구동 가능한 자율주행 교육 키트로, 카드 코딩부터 엔트리·파이썬·인공지능까지 단계별 학습 가능 설계.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한 차선 인식, 객체 탐지, 센서 퓨전, 머신러닝 기반 판단 등 체험 가능. - 주미 AI는 2019년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주미'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교사용 수업 자료와 디지털 새책 캠프 연계 콘텐츠 제공. 오는 2월 관련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예정.
	<p>□ 현대면세점, AI 기반 맞춤형 뷰티 체험존 'AI 뷰티 트립' 오픈 (2026.01.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면세점이 4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무역센터점에서 AI 기반 맞춤형 뷰티 체험존 'AI 뷰티 트립' 운영 발표. 스탠드형 '메이크업 AI'와 거울형 '스킨 프로 AI' 두 종류 기기 설치. - 메이크업 AI는 얼굴 사진 촬영을 통해 얼굴형·비율 분석과 퍼스널 컬러 진단, 스킨 프로 AI는 모공·유분·주름 등 피부 상태 분석 및 노화 정도 평가. QR코드를 통해 진단 결과 리포트와 맞춤형 상품 추천 확인 가능. - 입점 36개 뷰티 브랜드, 약 800여 개 상품 정보가 연동되어 정교한 추천 제공. 체험 후 관련 브랜드 상품 50달러 이상 구매 시 1만원 선불카드 제공. 설화수, 후, 클라랑스 등 국내외 주요 브랜드와 K뷰티 중소 브랜드 참여.
	<p>□ 세일즈포스, AI 에이전트 도입 기업 홀리데이 매출 성장률 59% 높아 (2026.01.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일즈포스가 세계 89개국 약 15억명의 소비자 쇼핑 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2025년 홀리데이 쇼핑 시즌(11월 1일~12월 31일) 글로벌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7% 성장한 1조 2900억달러 기록. - AI 및 AI 에이전트의 영향을 받은 매출 규모는 2620억달러로 전체 리테일 매출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div>민간기업</div>	<p>약 20% 차지. AI 에이전트 도입 기업들은 여타 기업 대비 59% 높은 매출 성장률 기록, 평균 매출 성장률도 6.2%로 미도입 기업(3.9%) 크게 상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챗GPT, 퍼플렉시티 등 AI 검색 채널 통한 유입 트래픽은 전년 대비 두 배 증가, 해당 채널 통한 구매 전환율은 소셜 미디어 유입 대비 약 9배 높은 수준. 에이전트 전략이 경쟁 우위 확보의 필수 요소로 부상. <p>□ TSMC, 4분기 순이익 23조5000억원...AI 칩 수요로 7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 (2026.01.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가 지난해 4분기 순이익 5057억 대만달러(약 23조 5000억 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7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로 사상 최대 실적 경신. - 매출액도 1조 460억 9000만 대만달러로 20.5% 증가. 3나노 28%, 5나노 35% 등 7나노 이상 첨단공정 매출 비중이 77%에 달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도 AI 칩 수요 견조 유지. - TSMC는 올해 설비투자를 2025년 대비 25% 늘릴 계획 발표. 블룸버그는 “공격적 투자
<div>대학교</div>	<p>□ 강원대, AI 부트캠프 어워즈 해커톤 개최...실전형 인재 양성 성과 점검 (2026.01.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대학교 AI분야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사업단이 '1차년도 AI 부트캠프 어워즈 해커톤' 행사를 19~20일 춘천 KT&G 상상마당에서 개최. AI 부트캠프 교육과정 이수 학생 60여 명이 참여해 무박 2일간 집중 개발 활동 진행. - 프로그램은 온라인 사전 멘토링, 팀별 아이디어 발굴과 서비스 설계, 현장 전문가 순환 멘토링, 결과물 발표와 성과 공유까지 전 과정을 단기간에 경험하도록 설계.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팀 협업 역량을 중점 평가. - 우수 성과자 10여 명은 2월 8~11일 일본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AI 산업 인사이트' 연수에 참여 예정. 오라클재팬, 업스테이지재팬 등 글로벌 IT 기업 방문해 해외 AI 산업 동향과 현장 기술 적용 사례 체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KAIST에 59억원 추가 기부...누적 603억원 (2026.01.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AI 인재 양성을 위해 KAIST에 발전기금 59억원 추가 약정, 누적 기부액 603억원 달성. 2020년 김재철AI대학원 설립을 위한 500억원 기부에 이어 세 번째 기부. - KAIST는 기부금으로 성남시 판교에 약 5500평(1만8182㎡) 규모의 김재철AI대학원 건물 조성 계획. 2028년 2월 완공 목표이며, 교수진 50명과 학생 1000명이 상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 거점으로 활용 예정. - 김 명예회장은 1979년 사재 3억원으로 동원육영재단 설립 이후 47년간 누적 약 1400억원 규모 장학사업 추진. 2019년 한양대 한양AI솔루션센터(30억원), 2025년 서울대 김재철AI클래스(250억원) 설립 등 AI 인재 육성에 지속 투자. <p>□ 국립경국대, 화분매개 연구 성과 발표...AI 융합 연구로 확장 (2026.01.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경국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가 15~16일 강원 태백 오투리조트에서 '바이오초격차-3P 화분매개 네트워크 중점연구' 성과발표회 및 워크숍 개최. 교수·연구원·대학원생 등 70여 명 참여, 총 23편 연구 발표와 4건 초청 강연 진행. - 화분매개 생태 연구가 기존 관찰 중심에서 데이터·AI 기반 융합 연구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 먹이망 연결성과 생태 안정성, 오믹스 기반 생물 먹이망 모델링, 기후변화와 원격탐사 기술, 드론·eDNA 분석 등 융합 연구 주제 발표. - 3P 화분매개 네트워크 중점연구는 올해로 9년 차로, 약 200편의 국제 학술 논문 발표와 40건 이상 특허 출원 실적. 2018년부터 한국연구재단 이공계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해 연구 지속, 경상북도·안동시·신젠타코리아 등과 협력 체계 구축.
해외	<p>□ 필리핀, AI챗봇 '그록' 접속 차단 6일 만에 해제 (2026.01.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정부가 일론 머스크 소유 엑스(X)의 AI 챗봇 '그록'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6일 만에 해제 결정. 그록 운영 측이 음란성 콘텐츠 생성 기능 제거를 약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한 데 따른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사이버범죄수사조정센터(CICC)는 그록 측이 딥페이크 제작 가능 이미지·콘텐츠 조작 기능 삭제와 특히 아동 성 학대 자료 등 음란물의 완전한 배제를 포함해 현지 시장에 맞춰 특별히 수정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 - 필리핀은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록 접속 차단 조치 시행. 일본 정부도 엑스에 개선 요구, 영국 오픈콤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검찰도 수사 착수 상태.
	<p>□ 네덜란드 법원, AI(챗GPT) 작성 혼인서약문 '혼인 무효' 판결 (2026.01.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오버레이셀 지방법원이 지난해 4월 즈볼러에서 열린 결혼식에 대해 혼인 무효 판결 선고. 챗GPT로 작성한 혼인서약문에 네덜란드 법에서 규정한 '필수 선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원인. - 네덜란드 법상 혼인은 당사자 양측이 시민 등록관과 증인 앞에서 서로를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해야 성립. 커플이 낭만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위해 챗GPT로 작성한 서약문에 해당 내용 누락. - 커플은 “법적 선언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표현 문제로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결혼식 날짜를 법적 혼인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기각. 해당 커플은 법적 부부가 되기 위해 다시 혼인 절차 진행 필요.
	<p>□ WEF 조사, 미국 AI 주식 하락 전망 52%...투자 열기는 지속 (2026.01.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수석 경제학자 전망' 보고서 발간. 수석 경제학자의 52%가 올해 미국 주식시장에서 AI 관련주 하락을, 40%는 상승 전망. 중국 시장 AI 관련주에 대해서는 65%가 성장 예측. - 미국 경제의 경우 수석 경제학자 97%가 AI 투자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 AI 인프라 데이터센터에만 향후 5년간 1000억2250억달러(약 147조332조원)의 연간 지출 증가 예상.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트너는 올해 전 세계 AI 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44% 증가한 2조5278억달러(약 373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BCG 조사에서 CEO의 94%가 '단기 성과 없어도 AI 투자 지속' 응답. AI는 2026년까지 '환멸의 골짜기' 국면에 머물 것으로 예상.
기타	<p>□ 경남 농업기술원, AI 기반 토마토 수확량 예측 모델 개발 (2026.01.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8년간 농가 현장에서 축적한 방대한 재배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토마토 수확량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모델 개발 및 현장 적용 발표. 시설하우스 형태·방향·입지 조건과 농가별 재배 기술 수준까지 반영한 '농가 맞춤형' 모델. - 2018년부터 8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해 면적 단위(10a)당 누적 수량 예측. 데이터가 쌓일수록 스스로 학습해 정확도를 높이는 구조로 설계. 고수량 농가와 평균값 비교를 통해 농장 상태 객관적 파악 가능. - 농가는 온도·습도·광량 등 최대 20가지 요인을 선택해 분석하고, 시각화된 권장 방안 제시. 스마트팜 내부 환경 제어를 통해 AI 분석값 즉각 적용 가능. 토마토에 이어 딸기 등 중소형 하우스 작물로 연구 범위 확대 계획.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